

이땅의 여성 ① 조합활동과 가정(2)

87년 이후 전체노동자투쟁의 급성장 속에서 특히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눈에 띄게 발전했다.

가부장적인 생각에 젖어 자신을 노동자가 아닌 주부로만 규정함으로써, 저임금 등 불평등한 노동현실을 개선하려는 투쟁이나 노조활동에 소극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노동자로 우뚝선 어머니들의 모습은 당당했다.

구하거나 드문 경우이지만, 이혼까지 요구하는 수도 있다. 이러한 가족의 이해부족은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과 결부되어 가정과 노조활동사이에서 심한 갈등에 빠지게 한다.

또 다른 문제로 시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고된 회사일과 자녀양육, 가사일 등 끝

더불어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는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이다. 맞벌이를 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노동자가족이 늘어나고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기혼 여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남녀차별사상을 기초로 사회구조적으로 강요되는 저임금과 불평등한 근로조건은 여성노동자들의 몫이 된다. 이러한 추세는 개인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며 기혼여성에게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요구하게 된

가족반대 시간부족...침침산중

가정에 안주하면 불평등은 더 쌓여

그러나 기혼여성노동자들이 투쟁의 최전선에 나서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인해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혼 여성노동자의 수는 남성이나 미혼여성에 비해 소수에 머무르는 것이 보통이다.

첫번째로 꼽을 수 있는 문제는 가족들의 이해부족이다. 아내가 노조활동에 관심을 갖고 노동자사상의 습득과 이의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남편들은 이해하기 보다는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적당히 하지, 우리는 워낙'은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가 '노조의 파업으로 철야농성을 한다'던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주부로서 복귀하기를 요

이 없는 집안일을 도맡다보면 노조활동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마련이다. 따라서 노조간부는 기피하고 조합원으로만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게 되고 낮모임에는 참석하지만 철야농성은 물론이고 퇴근시간 이후의 활동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조합활동에서 점차 멀어지고 만다.

이처럼 조합활동과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 가족투쟁이 노조활동과 결합하여 바람직한 관계로 발전하는 양상은 두드러진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여전히 문제만 산적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체노동자의 40%에 달하는 여성노동자의 수적 증가와

다. 만약 이러저러한 이유로 노조활동을 포기하고 가정에만 안주한다면 불평등은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해서 가족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가정과 활동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의 근본적 해소는 노동조건 개선과 결부되어 있으며 이것은 적극적인 노조활동의 결과로서 가능하다.

이전에는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었던 가족을 적극적인 투쟁지지자로 변모시키면서 투쟁의 주체로 우뚝 서는 것, 이제 투쟁때면 슬그머니 빠지는 기혼여성노동자가 아닌 당당한 노조의 선봉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